



“부흥 항한 열망” 기성총회 국내선교위원회는 최근 서산교회에서 ‘2019년 성결교회 부흥기워드 전국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열고 건강하고 행복한 목회 노하우를 전했다. 1천여 명이 몰린 이번 행사는 충회장 윤성원 목사를 비롯해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바울교회 원만연 원로목사 등이 강사로 나섰고, ‘우리 함께 믿음의 새 역사’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일방적인 강의만 아니라 목회 정보와 실제를 나누고 토론하는 시도도 있었다. © 기성 총회

“선교사들이 전한 보수 신학, 기독교가 민족 구원으로 확장”

영·호남 3.1운동에서 기독교 역할 주제로 박창식, 신종철 교수 발제

한국기독교와 3.1운동 100주년 기념세미나가 인사동 소재 승동 장로교회에서 21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열렸다. 예장합동 총회가 주최한 이번 기념 세미나에는 잇달아 ‘영남과 호남’의 3.1 운동사를 다루는 발제가 있었다.

먼저 영남지역 기독교 3.1운동사 연구로 박창식 대신대 외래교수 겸 달서교회 담임목사가 발제했다. 그는 “영남 특히 대구 지방의 3.1운동은 전적인 기독교 운동”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당시 대구의 이갑성이 브루언 선교사와 협력해, 3.1운동 준비과정에서 기독교가 주축 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영남지방에는 대구, 마산, 의성이나 영덕이 중심이었다”고 밝히며 각 지역의 중심축을 전했다. 즉 그는 “대구는 기독교계 지도자와 미션스쿨 중심이었고, 마산이나 부산은 미션스쿨교사와 학생들이 중심이었으며, 의성이나 영덕은 지역 교회들의 연합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3.1운동이 기독교적 운동”이라면 “이에 대한 교회사적 측면만 부각됐지,

신학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부재함”을 그는 꼽았다. 이어 그는 “당시 선교사들은 정교분리 원칙 속에서, 개인 구원과 성화만 강조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족이 받아들인 구원론은 좀 더 광의적”이라고 진단했다. 하여 그는 “선교사들의 개인 구원론에서, 일제강점기 상황 하에 기독교인들이 민족의 구원론을 어떻게 발전시켜갔는지”에 대한 연구를 촉구했다.

또 도발적인 반문을 던지며, 그는 “과연 3.1운동이 비폭력이었는가”를 되물었다. 그는 “종래 3.1운동은 비폭력을 전제로 한 건 맞다”며 “그러나 4월 10일 3.1 운동이 극대화 됐을 즈음, 투석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기독교인이 이 다수였던 영덕 지방도 예외가 아니”라며 “주재소, 면사무소에 불도 질렀다”고 전했다. 때문에 그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디딤돌 삼아, 그는 “1920년 기독교적 항일 무장운동과 3.1운동에서 드러난 폭력 운동이 서로 연계된 것 아닌가”라는 연구주제로 주장했다.

이어 신종철 ACTS 교회사 교수도 호남 지역의 3.1 독립운동을 전했다. 그는 “호남지역은 동학운동의 진원지”라며 “보통 3.1운동을 말할 때, 천도교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물론 그는 “천도교가 양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며 “그러나 가장 주도적이고 최선을 다했던 종교는 기독교”라고 단언했다.

신 박사에 의하면, 호남지역은 선교지 분할 협정에 따라 1893년부터 미국 남장로교가 미션 스테이션을 담당했다. 이에 신 박사는 “미국 남장로교는 성경에 입각한 보수주의신학이지만, 일제 강점기란 상황의 요청에 따라 신앙은 ‘나라 사랑’으로 표출됐다”고 밝혔다. 종래 서구 선교사들이 전한 보수주의의 철도교 신학이 조선 기독교인들을 개인 신앙으로 활원시켰다는 시각과 다른 주장을 신 박사는 펼친 것이다. “그게 바로 호남 지역 3.1운동”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특히 그는 “서구 선교사들은 청교도 전통에서 훈련 받았지만, 신양교육과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미션스쿨과 커리큘럼을 통해, 서양의 근대 민주주의를 한국교회에 전파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에게 기독교 신앙과 애국사상이 별개가 아니라고 교육했다”며 “이런 가르침을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호남지역 교회지

도자들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계다가 그는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민족의 독립과 자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란 생각으로 3.1운동 거사일과 거사계획, 필요성에 적극 알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그는 “남장로교 선교사들에게 교육받은, 호남지역 교인들은 민족 구원 사상을 견지하기 시작했다”며 “신앙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으로 운동을 이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 역설했다. 즉 그는 “이들은 험난한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꽃꽂이 이어나간 것”이라 전했다.

하여 그는 “3.1만세 운동을 거치면서, 호남지역의 기독교는 ‘민족의 십자가’란 모습으로 호남지역에 각인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교회사가 박용규의 말을 빌려 논지를 강화했다. 그는 “기독교가 고도로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오해를 불식시켰다”며 “기독교야 말로 자기희생이고 민족의 미래를 즐기며 염려하는 신앙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모든 타종교 지도자들과 이민족에게 보여준 것”이라 인용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동학의 본거지였던, 호남지역은 왜혁(倭劫), 반봉건이 주요했다”며 “개신교사 반봉건을 민족 사람으로 바꿨다”고 주장하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

노형구 기자

국민 85.4%, 북한인권 상황 “심각”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 실태 인식 조사보고서 발표

‘2018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발간 기념 세미나’가 21일 오후 1시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 주최 하에 열렸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했다. 문항은 다음과 같다.

북한인권 상황 인식 및 개선 여부에 대한 문항에, 85.4%는 ‘심각’이라 응답했고, 10.9%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은 2017년에 비해 33% 증가했으나, ‘나빠지고 있다’는 37.6% 감소했다. 이에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과 남북 관계 개선 조짐에 의한 착시효과인 듯하다’며 ‘북한인권의 실제 상황과 국민 인식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해야 함’을 전했다.

또 ‘북한인권 개선 가능성’을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65.1%는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30.4%는 ‘더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에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남북관계 개선과 미·북간의 회담 진행이 북한인권 개선을 자동적으로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인권 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더불어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61.2%는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38.4%는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을 묻는 문항에, 응답

자의 36.3%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을 뽑았다. 다음으로 ‘꾸준한 대화를 통한 개선촉구 및 지원’(33.8%), ‘북한인권에 기록 및 홍보’(8%) 순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금까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선적 방법은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이 가장 높았다”며 “이제 국민들의 인식은 ‘대화와 지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단체가 가장 우선해야 할 역할’을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34.3% ‘북한인권 상황 기록 및 피해상황에 대한 국내외 홍보활동’을 꼽아 가장 높았다. 이어 ‘김정은 국제행사제판소 제소 등 국제적, 정치적 활동’이 22.5% 순이다. 북한인권센터측은 “북한에 대한 정치적 활동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 인권기록과 국내외 홍보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형구 기자

“먼저 된 자는 먼저 죽는 자여야 한다”

김명혁 강변교회 원로,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 ‘남강 이승훈 선생’ 주제로 대담

김명혁 강변교회 원로목사와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가 남강 이승훈 선생을 주제로 21일 오전 10시에 강변교회에서 대담을 가졌다.

3.1운동 33인 대표 중 한명인 남강 이승훈 선생, 기독교적 민족정신을 지난 리더기 위해 지금 시기 100억 원의 사재를 털어 오산학교를 설립했다. 김명혁 원로 목사에 의하면, 한 경직 목사가 오산학교 출신이라고 한다.

특히 김명혁 목사에 의하면, 33인 선생 중에 16명 기독교 지도자들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에 참여했던 이승훈 선생은 16인 기독교 지도자들을 규합하는 등 정치적 역량이 뛰어났다’며 “그러나 정치적 욕심은 없었고, 오직 민족을 위해 후진 양성에 힘썼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민족 해방이라는 대의를 위해, 기독교만이 아닌 모든 종교가 연합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셨다”고 긍정했다. 즉 그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지만, 큰 그릇으로 민족 해방이란 대의를 위해 천도교와 협력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당시 33인 민족대표 중, 기독교 지도자 16인 사이에서 “독립청원으로 할 것인지, 독립선언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에 이승훈 선생은 “먼저 된 자는 먼저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며, 곧바로 천도교 손병희 대표를 추천했다. 그만큼, 김 목사는 “대의를 위해서, 천도교인들을 포용하고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았던 이승훈 선생”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 목사는 “이승훈 선생은 서울의 박희도 목사, 대구의 이갑성 목사를 동지로 포섭했다”며 “당시 기독교 대표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屁를 통해 끝까지 천도교와 연합하려 했던 3.1 운동의 준비 과정을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김 목사는 “이승훈 선생은 3.1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옥중에 갇히고, 이후 불에 태워진 오산학교를 건립 했다”고 말하며, “오산 학교를 졸업했던 한경직 목사의 회고”를 전했다.

김 목사에 의하면, 한경직 목사는 “4학년이었을 적, 남강 이승훈 선생은 학교에서 일본사람에게 고문 받은 일제로부터 자주적 독립을 추구해야 함을 주장했다”고 했다.

김 목사에 의하면, 한경직 목사는 “민족주의자를 표방했지만, 예수를 믿

▶관련기사2면

미국무부 “北인권 개선 사업에 600만 달러”

미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이 20일, 북한의 인권과 책임 추구, 정보 접근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단체와 기관들을 위한 기금 지원 공고를 발표했다.

국무부는 먼저,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그리고 북한 내 정보 유동을 촉진하는 사업에 약 35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감시한은 오는 5월 17일이며, 지원 금액은 총 500만 달러라고 VOA는 전했다.

대북 라디오 방송 제작과 송출, 북한 주민들에게 흥미 있는 콘텐츠 생산이나 기존 콘텐츠 획득, 정보와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공유하는 새로운 체제의 개발이나 기존 북한의 국내법과 국제적 인권 의무에 따른 법률적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표현과 이동 등을 사례로 들었다.

또한,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에 15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마감시한은 역시 5월 17일이며 각 부분에 3개에서 8개의 사업들이 선정될 예정이다.

서울평양뉴스

1면에 이어서

게 던졌다.

이에 김 목사는 “이승훈 선생은 민족 주의와 국가주의를 반대하셨고, 예수 안에서 평화와 자유를 주장하셨다”고 강조했다. 또 김 목사는 “종교는 다르지만 나라를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며 “지금 전로교안에는 300개의 교파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여 그는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이승훈 선생의 정신을 계승해 예수 평화를 적극 추구할 것을” 역설하며, “이런 정신으로 북한동포, 무슬림들도 사랑으로 끌어안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사회자는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박희도, 정춘수 목사는 천일로 변절했다”며 “이들의 변절로 이승훈 선생은 비통함이 막대할 것 같다”고 유추했다.

이에 박종화 목사는 “3.1운동 이후 일제는 문화통치를 통해 민족정신을 앗아가려 했는데, 신사참배도 그 일환”이라 설명했다. 더구나 박 목사는 “3.1운동 선언 때 정춘수 목사는 ‘독립 선언’이 아닌 ‘독립 청원’을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놓고, 박 목사는 “정춘수 목사는 ‘일제 강점기는 하나님과 우리 조선에게 주신 별이니, 달게 받아야 한다’”며 “일제에게 조선 독립을 ‘부탁’한다는 이조를 견지했을 것”이라 유추했다.

특히 박 목사는 “당시 독일 나치에게 교황도 타협했다”고 지적했다. 하여 그는 “3.1운동 때 천주교의 정책은 ‘일본식 민족지배는 조선이 승복해야 할 체제’라며, 일제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박 목사는 “이승훈 선생의 항일 정신은 당연하게 아니”라며 “그분



김명혁 목사(왼쪽)와 박종화 목사 ⓒ 노형구 기자

이 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도 강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그는 “정춘수 목사가 변절을 택한 걸 이상하게 여기는 것” 보다 “인간의 본질적 약함을 생각하며, 이승훈, 주기철 목사의 혼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사회자는 “로마서 13장에서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나와 있다”며 “당시에 정춘수 목사 등 변절했던 기독교 지도자들은 로마서 13장 해석을 어떻게 했을지”란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명혁 목사는 “모든 권세를 인

정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즉 그는 “나쁜 권세도 하나님의 어울 때는 사용하실 수 있다”며 “이런 논리로, 모든 권세를 정당화하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유신 정권에 대해 기독교 재야인사들이 투쟁했던 것처럼, 이승훈 선생도 끝까지 예수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예수께서는**

“하나님, 저희가 이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필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들려온 남편의 4기 대장암 소식,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 항암치료가 종료된 지 일주일도 채 안되어 알게 된 아내의 4기 혈액암... 잠시도 숨 틈 없이 밀려오는 고난에 부부는 깊은 탄식과 함께 기도로 매달리는 것 밖에는 할 수 없었다.”

“내 안의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

지도자들도 이런 화합을 이끈 지도자였다”며 “결국 남·북 관계, 교회 연합도 ‘나 중심’에서 벗어나, 자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불어 조화를 이룰 리더십”을 당부했다.

김 목사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이승훈 선생도 ‘지도자는 먼저 죽는 사람’이라며 희생정신을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희생에는 기단과 고난이 뒤 따른다”며 “손양원, 이성봉, 주기철 목사 등은 다 거지로 살았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3.1 정신을 계승하고자 노력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조언”을 부탁했다.

이에 박종화 목사는 “3.1운동은 혼자 곧, 나홀로 지도력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다 함께 지도력”이라며 “현 한국교회가 교단 간 분열이 팽배한 상황에서 귀감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진정한 지도력은 합하는 것”이라며 “예수를 중심에 두면, 갈라서지 않음”을 전했다.

특히 그는 “**‘예수의 몸에 불는**

‘지체’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항상 자기가 몸인 양, ‘내 중심으로 모여’라는 지점에서 본연의 생김을 꼬집었다. 또 그는 “지체는 다양한 캐릭터를 지니고 있다”며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 있다”고 밝혔다.

하여 그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 말로 논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교파도, 사람도 모두 같은 수 없기에, 화합(Harmony)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그는 “이승훈 선생 등 3.1운동

지도자들이 이끈 화합을 이끈 지도자였다”며 “교단끼리 ‘경단 교류’ 등이 좋은 화합의 방법”이라 제안했다. 특히 그는 “구원은 첫째 단계, 예수 안에서 화해, 평화, 통일이 두 번째이며 마지막 단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하나님은 요나에게 원수 니느웨에게 가서, 회개를 촉구하셨다”며 “이처럼, 자기를 비우고 고난을 감수해, 모두를 끌어안는 희생정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는 전했다.

이처럼 예장합신, 기독교장로회(한신대)의 두 원로인 김명혁 목사와 박종화 목사는 “그리스도의 지체리더십으로 ‘화합’을 강조하며, ‘남강 이승훈 선생이 한국교회에 남겨준 정신’에 대한 대답을 마무리했다.

홍은혜 기자

‘교회오빠’ 故이관희 집사 이야기 영화로 나온다

5월 개봉

지난 2017년 방영 직후 명품 드라마다로 불리며 전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KBS 스페셜 ‘앎: 교회오빠’의 주인공 故이관희 집사, 그의 마지막 이야기를 담은 영화 ‘교회오빠’가 다가오는 5월 개봉을 앞두고 1차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교회오빠’의 1차 포스터는 어둠 속에 고난을 숨기고 천국 쪽 기도를 하고 있는 故이관희 집사의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4기 대장암 판정을 받은

후 갑작스런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연이는 아내의 4기 혈액암 소식까지 감히 상상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고난을 마주하게 됐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은 좌절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닌 감사하고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었다.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 앞에 서다”라는 포스터 카피처럼 가혹한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냈던 구약성서 ‘욥기’의 ‘욥’과 같이 마지막까지 사랑을 다한 故이관희 집사. 그가 마주한 고난을 상징하듯 깜깜한 어둠이 故이관희 집사

를 둘러싼 가운데 희미하게 비치는 한줄기 빛 앞에서 두 손을 꽉 쥔 채 기도를 하는 모습이 담긴 ‘교회오빠’의 1차 포스터는 보는 것만으로도 그가 들려줄 묵직한 감동의 이야기를 기대하게 만든다.

믿기 힘든 고난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던 故이관희 집사의 이야기를 담은 감동 휴먼 드라마 ‘교회오빠’는 오는 5월 개봉과 함께 전국에 또 한 번 치유와 회복, 사랑과 깨달음의 시간을 선물할 예정이다.

SYNOPSIS

“하나님, 저희가 이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필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들려온 남편의 4기 대장암 소식,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 항암치료가 종료된 지 일주일도 채 안되어 알게 된 아내의 4기 혈액암... 잠시도 숨 틈 없이 밀려오는 고난에 부부는 깊은 탄식과 함께 기도로 매달리는 것 밖에는 할 수 없었다.

“내 안의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

는 삶”

마치 ‘욥’과 같은 인생. 이해할 수조차 없는 기막힌 상황에도 남편 이관희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절대로 ‘주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그는 무엇을 바라보았을까.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루라도 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갔던

이관희 집사의 순전한 믿음이 스크린을 통해서 펼쳐진다.



예성, 태국에서 2019년 해외선교전략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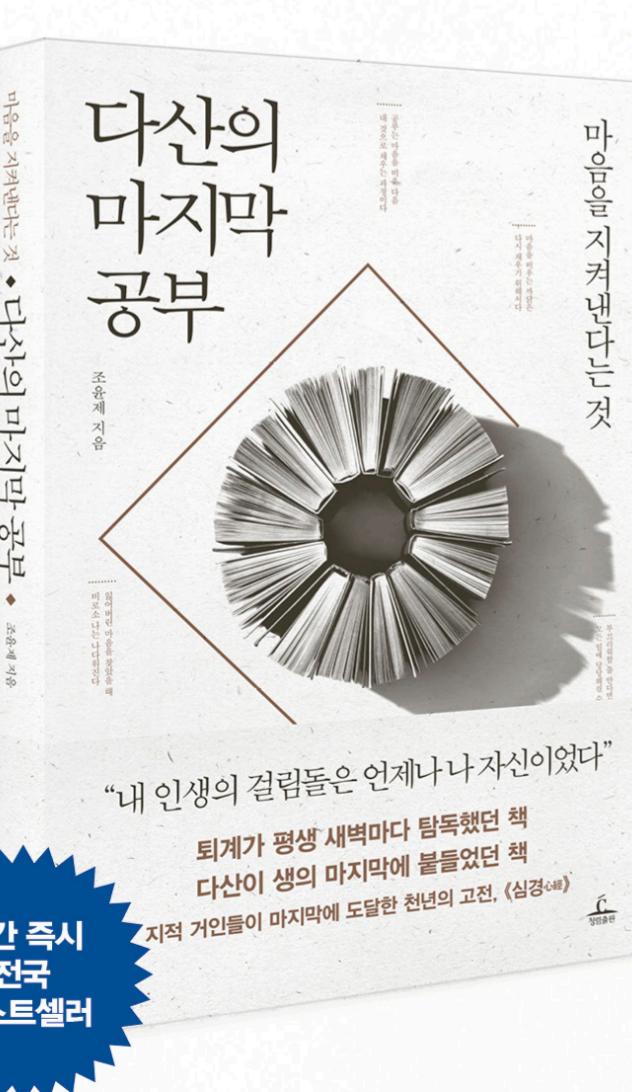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윤기순 목사) 총회 선교부가 주최하고 해외선교위원회가 주관한 ‘2019년 예성 해외선교전략회의’가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태국 방

략회의를 가짐으로 앞으로의 해외선교에 대한 교단 차원에서의 선교전략 방안들에 관한 내용으로 심도 깊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회의에서는, 예비 선교사를 위한 예성 선교지에서의 1개월 인턴 실습과정 실시, 해외 거점도시에 예성 해외선교위원회와 선교부 눈의 후 선정, 선교사 파송 교회들을 위한 선교사 지원 매뉴얼 제공,

예성 해외선교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해외선교전략회의 개최 등에 관해 논의했다.

박용국 기자



“인간의 마음은 늘 휘청거리니 그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심경》첫 구절 중에서

다산 정약용, 퇴계 이황, 정조 이산… 그들은 왜 마지막까지 《심경》을 읽었을까?

“지금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다스리는 데 온 힘을 다함으로써, 그간의 공부를 《심경》으로 매듭짓고자 한다. 아, 능히 실천할 수 있을까!” — **다산 정약용**

“나는 《심경》을 얻은 뒤에 비로소 마음을 공부하는 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공부에 뜻을 두고 일어서 평생 분발할 수 있는 힘은 이 책에서 나왔다.” — **퇴계 이황**

공부의 마지막에서 도달한 깊은 경지, 마음 마음공부의 ‘꿀판왕’이자 지금은 잊힌 조선 최고의 베스트셀러, 《심경》이 이야기해주는 마음을 지킨다는 것.

다산의 마지막 공부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

조용제 저작 | 값 15,000원



내가 단단해지는 새벽공부
천년의 내공
조용제 저작 | 값 15,800원

TEL 02-546-4341 FAX 02-546-8053 www.chungrim.com

정용출판

인생역전(人生逆轉) –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창:19-20/13:1-4)



1. 수치를 풍요
함으로 바꾸신
하나님 (창세기
12장 19-20절, 13
장 1-4절)

12: 19. 네가
어찌 그를 누이
라 하여 내가 그
를 데려다가 아
내를 삼게 하였
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
제 데려가라 하고

20.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
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
의 모든 소유를 보내더라

13: 1.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땅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2.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음과 금이 풍부
하였다라

3.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벤
엘에 이르며 벤엘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관점은 바꾸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번 변화산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인생역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셨던 역사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역전의 배후에는 ‘은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아보라고 주신 은혜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 ‘사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에 근거해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에 근거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 교만하고, 교만은 필연적으로 죄를 낳게 됩니다.

저는 이번 변화산의 주제를 ‘인생역전’이라 정하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는 중에 깨닫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복잡았다고 해야 옳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오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주 하려는 시도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물론 신앙은 의지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의지적 행동이 우리의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피터 윌슨의 책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내 죄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길입니다.

언뜻 들어보면 꽤 기독교적인 방법처럼 들립니다. 무조건 열심히 노력하고 많이 헌신하는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점점 죄를 멀리하려는 행동으로 우리의 목표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행동을 고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조금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흔히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리를 때나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하고 있었습니까. 창 11장 31절.

왔지만 그것은 복음의 진리와는 동떨어진 삶이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에 보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그의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이 있음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야 말로 충복이라 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간 사람이나 아니라,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 한 주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양이란,

이 둘 사이의 긴장 관계에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아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우리의 눈을 감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때론 부정하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치유사역을 하시는 청주의 주서택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예화입니다.

수년 전 복지시설에서 만난 노성마비 장애우가 있다. 그는 30년간 자기 집 다락방에서 고립돼 살았다. 부모는 아들의 존재가 알려 질까봐 손님이 오면 다락방에 있는 아들에게 숨소리도 내지 말라고 약단쳤다. 어머니가 올려주는 밥을 먹으며 살던 그의 유일한 친구는 라디오였다. 어느 날 그는 기독교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다락을 벗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연을 적은 쪽지를 다락의 창문 밖으로 날려 보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 앞을 지나던 행인이 그 쪽지를 보았고 우여곡절 끝에 그는 세상 밖으로 나와 시설에서 살게 됐다. 그는 사람들도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숨을 필요가 없어 너무 행복하다고 했다.

자신의 분신인 자식이 장애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 숨겨놓은 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열등하고 못난 부분을 숨기려고 애쓴다. 사람들에게 잘난 것만 내보이며 못난 부분이 드러날까봐 긴장한다. 하지만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한 자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살 수 있는 용기와 자유를 갖게 된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알았고 주님의 자녀들은 외칠 수 있다(사 50:7). 이런 삶이 풍성한 삶이다.

◆왜?

우리는 누구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좋아합니다.

그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고, 복의 균平原이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 축복 이전에 ‘수치스러운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하나님의 부드심을 받고 따라간 아브라함의 인생에 왜 ‘수치’가 찾아왔을까요?

오늘 본문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바로 전에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참 수치스러운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스런 일은’ 갑자기 예기치 않은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통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일 역시 그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자연 재해를 통해 다가온 일이었죠.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흔히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리를 때나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하고 있었습니까. 창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롯의 아버지였던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고, 데라가 이들 모두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던 중 ‘하란’에 멀물러 살았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간 사람이나 아니라,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 한 주간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삶에는 ‘예배’가 계속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8절.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례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인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때가 언제인지 주목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한 일이죠.

부족한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민낯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펠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살면서 여러 번 실망하는 일을 겪었다. ‘실망’(disappointments)이라고 읽는 대신 그 단어의 한 글자를 바꾸어 ‘그의 약속’(his-appointments)이라고 읽을 때까지는, 그렇게 바꾼 것은 멋진 일 이었다. ‘실망’은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그의 약속’은 실망스러운 일을 기본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에서 실수는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셨습니다.

미국 초콜릿 ‘스낵케즈’를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의 이 초콜릿의 광고 문구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가졌던 신앙의 오류가 있습니다.

“You are not you when you are hungry”

“배가 고플 때, 당신은 본래의 모습이 아니다!”

베고프면 사람이 달라지니 빨리 스낵케즈를 먹으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가장 원초적 욕구에 직면할 때,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본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초적 욕망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인생역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는 두려웠고, 아브라함을 불러 아내를 몰려주었습니다. 비록 애굽 땅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지만 그 땅을 떠날 때 모습을 보니, 창세기 12장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는 방법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시작은 기근이었으나, 애굽으로 피난

갔던 어려움의 시기를 통해 복을 더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13장 1-2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땅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섰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음과 금이 풍부하더라

‘아브라함에게 음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는 부분이 NIV 성경에 보면 ‘Abram had become very wealth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들어올 때는 가난했지만, 애굽을 떠나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는 부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고,

그를 부르셔서 예배했던 장소에 다시

세계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3장 3-4절.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벤엘에 이르며 벤엘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 때의 일을 추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했었지. 그래, 여기서 다시 하나님과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해야지.”

- 감사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인생의 ‘아픔’도 들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곳이 바로 예배처이고, 교회입니다.

신앙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신앙인들이 타락하게 된 원인은 ‘성전신앙’이 들어오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인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가 생각한 해결책이 얼마나 치사한 일이었는지... 인간의 능력이란 그런 것이라는 것.

그렇게 치사할 수밖에 없는 인간 아브라함의 ‘민낯’을 보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민낯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베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베루신 은혜에 대한 고백”이라는 원리입니다.

아무 때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나 감사해서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 위해 예배를 드렸다는 구절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소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로 주시고 허락하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인생역전’은 예배의 자리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며, 우리의 인생이 어제와는 다른 길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설교

면서 부터가 아닐까요? 특정한 장소에서,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그 예배가 우리 신앙에서 의무가 되어 버릴 때 말입니다.

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는 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보편적 임재의식’ ‘성령의 임재’가 바

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장소가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온 험을 고백했던 장소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 감사를 잊어버렸다면 제 잘난 멋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면, 예배의 장소를 잊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변화산이 잊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8:31-36)

*구속(拘束)의 반대는 자유(自由)이고 압제(壓制)의 반대는 해방(解放)입니다



1. 자유케 하는 진리

A. 유대인들의 자유에 대한 의식(意識): 스스로 하나님과의 자녀인 양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선민사상(選民思想)에다 율법준수(律法準守)자로 자처하며 우쭐대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갈파(喝破)하신 말씀으로 유대인들의 참 자유에 대한 그릇됨을 일깨워 주시려는 교훈(敎訓)이었습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애굽에 400여 년, 바벨론에 70여 년 지금도 로마제국의 식민(植民)으로 압제를 받고 있으면서도 남의 종(從)된 적이 없다는 말로 속박(束縛)이나 자유에 대한 무감각(無感覺)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삶의 목표도 없고 이유도 없어 그저 형편과 처지에 밀리며 연명해 가는 것 같았습니다.

B. 인류(人類)가 왜 구속과 압제를 당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16-17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일의 력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하신 말씀 속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2:9에서 생명나무라 하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선악과(善惡果)라 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락 받은 생명과일만 따먹고 살았으면 에덴 낙원에서 영생할 수 있었는데 창세기 3:1-6에 가장 간교한 뱀(사탄)의 꾀임으로 이성을 잃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까지 먹게 함으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신종(信種)했기 때문에 영적소속(靈的所屬)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예속(隸屬)되어 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문에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심어놓고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신 대로 이브가 따먹고 죽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 해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만들어 경계의

표준을 삼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원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가능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의문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 먹을 가능성이 있음을 아시면서도 선악과를 봉지(放置)하심으로 이브가 따 먹게 된 것은 하나님께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만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기계적으로(존경심도, 정성도, 의지도 없이) 섬길다는 것인데, 그 섬김에 대한 의미는 아무것도 없을 것 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선택의 자유의지를 중심으로 사람이 하나님과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기로 삼아려운 상황(환난과 힘박, 죽인다는 위협과 극심한 고통)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인내와 기도로 견디며 이겨내는 것을 큰 믿음으로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한일관 식당입구에 왕과 왕비의 복장을 한 인형이 나란히 서 있는데 손님이 들어 올 때자동 치치로 “어서 오십시오!”하면서 공손히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 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모습을 반복해서 보게 될 때 아무 의미 없는 기계적 작동에 실증이 날 것입니다.

본문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하셨고, 로마서 6:16에도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해 이르느니라” 하심과 범죄한 인생은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과 징역형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떨 뿐 아니라 계속 마귀에게 속아 이용당하며 계속 범죄로 징역 길을 재촉하게 됩니다.

결국 사탄의 앞잡이로 하수인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훼방, 펑박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 발악하기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시편 107:10-12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히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듭는 자가 없었도다”하신 대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음은 깊은 절망 상태로 죽을 지경으로 몰린다는 뜻이겠

고 곤고는 곤란하고 괴롭다는 뜻이며, 쇠사슬에 매입은 중죄인으로 쇠사슬로 된 포승 줄에 얹매여 형무소와 재판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마귀의 꾀임에 빠져 범죄한 인간은 영적 소속이 마귀에게 사로잡힘으로 그 영이 하나님과의 생활에서 떠나 애베소서 4:18에 “저희 종들이 어두워지고 저희가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활에서 떠나 있도다”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은 애베소서 2:1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되는 일이 없고 매사가 꾀꼬리고 어긋나며 실례도 하고 사람과 돈에 종노릇 하게 되는 것은, 마귀의 꾀임에 속아 범죄한 죄 없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39에도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라” 하셨습니다.

2.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A. 요한복음 17:17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셨고 요한복음 14:6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하심을 보아 진리는 곧 예수님 자신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7:10-20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죄 값으로 영육간(靈肉間)에 죽어 가던 죄인들이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었더니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하심으로 영육간에 죄악에 얹매여 지옥으로 끌려가던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곧 예수그리스도)을 보내어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로 죄 사하심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서도 죄를 면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상속받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가 철저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져 죄를 용서 받고 성령을 받아야 은혜 안에 자유하며 말씀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죄악의 사슬과 지옥 형벌의 두려움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1-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B.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계속 종 노릇 하지 말라: 로마서 5:8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심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마귀에 의한 옮물과 압제와 위협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진리와 은혜로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무한하신 사랑과 공의(公義)의 실천(實踐)으로 하나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내어 주셔서 믿고 구원 얻어야 할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벌 받아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시고 가시와 함께 절리시면서 피를 쏟아 죽임 당해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잠시 어찌해야 좋겠는지를 생각해봤지만 만일 이 일이 탄로되어 양부모님께서 진노하시고 자기를 쫓아버리시면 자기 몸값으로 얹어진 아버지의 농토가 반납(返納) 될 것이고 자기도 그동안 부자집 아들로 호의호식(好衣好食)했는데 순간의 실수와 범죄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실례(實例)로 유럽의 어느 백작(伯爵)내외가 넓은 토지(土地)를 가지고 영농(營農)을 하는 거부(巨富)로 살았는데 어느 가난한 친족(親族)집의 아들 하나님을 양자(養子)로 들이기 위하여 농토를 패 많이 건네주었습니다. 그 백작은 사회적인 지위도 재산도 겹비한 부자이기 때문에 그는 매일같이 회의나 파티에 초대되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양자로 들어온 아들이 아버지의 멀리의 벽에 걸려있는 활과 화살을 보고 갑자기 활을 쏘아보기로 충동심이 발동하여 화살과 활을 가지고 집 뒤 정원으로 나갔는데 마침 그때 거위 한 쌍이 보였습니다. 그 아들은 서둘러 화살을 시위에 걸고 힘껏 던져서 거위를 향해 쏘았습니다. 화살은 거위 몸에 명중했고 꽉차 소리를 지르더니 그만 땅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비로소 아들은 후회 하면서도 아무도 물레 묻어 버리겠다고 죽은 거위를 힘겹게 들고 다소 멀리 있는 언덕 밑에 묻어주고 귀하기 위하여 연장을 들고 돌아서는데 그 집에서 부엌일을 맡아 고용된 아주머니가 이상한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답니다.

그 아주머니는 걱정 해주는 듯 “큰일 났네. 어떻게 한다지? 지난 초봄에 백작께서 거위 한 쌍을 사오시면서 집안이 적적하니 이제부터 이놈들이 내 즐거움이 되어 줄 것이라며 매일 아침 먹이를 주시

며 무척 사랑하셨다”고 했을 때 그 아들은 앞에 깜깜해지고 객기를 부린 자신의 경기방망(輕舉妄動)에 후회가 막심했답니다. 그때 부엌 아주머니 말씀이 “내가 이 사건을 눈감아 주겠다면 내게 어떻게 해주겠느냐?”고 흥정을 해왔습니다. 그 아들은 “아주머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제가 아주머니에게 어떻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했더니 아주머니 웃더라. 어른들이 외출하시고 안 계실 때마다 집안과 부엌까지 청소하는 것과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할 것이며 그 외에도 자기가 하라는 대로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잠시 어찌해야 좋겠는지를 생각해봤지만 만일 이 일이 탄로되어 양부모님께서 진노하시고 자기를 쫓아버리시면 자기 몸값으로 얹어진 아버지의 농토가 반납(返納) 될 것이고 자기도 그동안 부자집 아들로 호의호식(好衣好食)했는데 순간의 실수와 범죄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엌 아주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부모님이 집을 비우시기 바쁘게 부엌 아주머니가 “아! 빨리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서둘러 다 해놓아야 한다!”고 큰소리치며 마치 자기 종처럼 부려먹게 되어 그 아들은 도무지 밥 먹을 시간도 잠시 쉴 시간도 갖지 못한 채 매일같이 중노동에 시달리며 몸살 까지 앓게 되어 전신에 기운도 없고 급속도로 바싹 말라가니 새 어머님께서 불러 “왜 갑자기 네가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며 원인을 밝히라고 하실 때 아들이 비로소 “화살로 거위를 죽여 매장했는데 그 장면을 부엌 아주머니가 다 지켜보고 비밀로 해줄 터이니 자기를 도와 종이 되라고 해서 부모님이 집을 나가시기 바쁘게 불러서 이일 저 일을 시키는 대로 하

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님은 아들을 끌어안고 등을 다독이며 “이 어리석은 아들아! 이 엄마와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까짓 죽은 거위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가슴을 조이며 부엌 아주머니께 종노릇 까지 하느라 죽을 지경이 되었나니, 엄마라 내가 아버지께 잘 말씀 드려 거위한 마리를 더 사다 놀을 것이며 부엌 아주머니도 오늘 당장 내보낼 것이다”라고 위로를 하셨답니다. 그때 그 아들의 마음 깊은 곳에 부모님의 신뢰와 사랑에 뜨거운 감동이 새겨지면서 다시는 실수로 범죄하지 않고 효도할 것을 다짐했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더욱 악랄하여 성도를 죄짓게 만들고 범죄 즉시 하나님께 버림받도록 직고(直告)하기도 하고 이미 범죄 한 것을 을무로 계속 악용하려 할 것입니다. 요한서 1:9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있으며, 히브리서 4:16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금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하셨으니 찰된 자유와 온전한 해방을 위하여 서둘러 회개하고 용서 받으십시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다면 누구나 예수그리스도의 구원복음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인데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고집 때문에 귀신에게 더 시달리며 종노릇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2:5에 “다면 네 고집과 회개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다”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며 서둘러 철저한 회개와 온전한 신앙고백으로 구원받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 김광수

발행인

장세규

편집인 김규진

인쇄인 허요섭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 1개월 15,000원

등록번호: 서울 기50089 등록연월: 1990년 7월 19일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대표구독 SC은행 130-20-571787

우리은행 1005-301-884992

간별: 일간

미주 기독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www.kogas.or.kr

굴착공사 신고번호
1644-0001

바르게 딘는 안전의 첫걸음

굴착신고 및 사전협의는 굴착공사의 처음입니다

굴착공사에 의한 배관 손상사고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굴착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굴착신고는 필수입니다.

굴착공사 신고절차

굴착공사계획 신고 ◉ 접수번호 발급 ◉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 ◉ 굴착공사개시 통보 ◉ 굴착공사 시행

*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OREA GAS CORPORATION